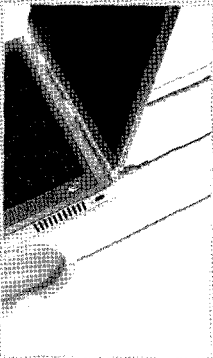




## 조합 · 업계소식



- 골판지포장조합 33차 정기총회 개최
- 제21회 한국골판지포장대상 시상식
- “납품단가 협상권 협동조합에 부여를”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을 진정한 업종리더로 육성”
- 아세아페이퍼텍, 경산제지 인수
- 아세아페이퍼텍의 경산제지 인수의 의미
-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사항 안내
- 일본 이타가미 골판지 신문에 한국의 제미스코 WACS기계 보도

## 골판지포장조합 33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4(목) 서울팔래스 호텔, 오진수 이사장 연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011. 2. 24(목)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총 50여 명의 귀빈을 모시고 결산 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10대 이사장에 현 이사장인 오진수 이사장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대되어 선출된 오진수 이사장은 전형위 원회를 열어 2015년까지 4년간 함께 일할 이사, 감사로 「수도권에서 한국수출포장공업(주) 허용삼, 한덕판지공업(주) 이완중, 제일산업(주) 손명섭, 도림판지(주) 이상원, (주)동주 조병태, 신안포장산업(주) 김일영, (주)산성피앤씨 김진구, 태림포장공업(주) 정상문, (주)삼보판지 류동원 대표

이사, 영남권에서는 중앙포장(주) 박병찬, 유신포장공업(주) 박문환, (주)광진포장 양근창 대표이사를 조합이사로 선출하고, 감사에는 원창포장공업(주) 성영화, 대영포장(주) 권영 대표이사를 선출하였다. 10대 임원진으로 진입한 정상문, 류동원 대표이사의 경우 골판지포장업계 원로인 정동섭 회장과 류종우 부회장의 뒤를 이었다는 점에서 골판지포장업계의 세대교체 과제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받을만하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도 운영방침을 『골판지포장산업 상생협력의 해』로 정하여 2011년도 사업예산을 전년에 비해 10% 감액한 5억 5천만원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골판지포장산업의 장단기 정책개발과 골판지포장 관련KS규격의 합리화, 상생경영 환경조성과 골판지포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TV홈쇼핑사업에 7천만원의 지분 참여를 결의하였으며, 10여년 만에 조합원 월회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승인되었다.

## 제21회 한국골판지포장대상 시상식 도림판지공업(주) 이상원 대표이사 지식경제부장관상



2011년 2월 24(목)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골판지포장조합 정기총회에 앞서 '제21회 골판지포장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총 5명으로,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골판지포장산업의 근대화 및 발전을 주도하고, 골판지포장업계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일관된 신념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도림판지공업(주) 이상원 대표이사가 지식경제부장관상 포장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장설비의 현대화, 신제품 개발 주도

등 역할 담당, 노사협의회 위원장으로써 노사화합을 통해 노사분규가 없는 모범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태림포장공업(주) 정흥섭 상무이사가 중기청장상겸 포장경영상, ERP구축 및 생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생산설비의 최적화 구현 및 운용하였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원창포장공업(주) 이강선 부장이 중기청장상겸 포장기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장상겸 모범포장인 상은 탁월한 영업력으로 2010년 매출을 287억원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 담당을 해온 삼성포장(주) 김동욱 차장, 확고한 목표의식과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되고, 생산관리 메뉴얼을 직접 만들어 생산팀원을 교육을 통한 생산 효율화에 기여한 (주)대성판지 강서구 계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였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위한 골판지포장업계의 이슈를 부각시켜 도움을 받아왔다는 평가를 받아 매일경제 전호림 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납품단가 협상권 협동조합에 부여를”

하도급법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회의에서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협상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의원과 이사철, 권택기, 조문환의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 관계자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도 참석한 간담회에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담당자를 만나기도 어렵다”며 협상권 부여를 주장했다.

반면, 전경련 측은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할 때 카르텔 형성이 우려된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협상권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을 진정한 업종리더로 육성”

“협동조합을 진정한 업종의 리더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당당하고 사랑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제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기문 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선거공약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협동조합을 업종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 소기업 · 소상공인제품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와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참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별 중소기업회관 건립, 협동조합의 이행공제사업 도입 등 맞춤형 업종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강화, 영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 · 중소기업간 당당한 동반성장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회 내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

고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손급산입한도와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우대제도의 인원기준도 폐지한다.

김 회장은 또 찾아가는 업종별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을 완화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저작권센터 설립, 한국형 '기술 마이스터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협동조합을 위한 해외시장정보센터 구축 △선진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 △중소기업 해외민간대사제도 확대 △中企-문화계 사회적 기부 대장정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아세아페이퍼텍, 경산제지 인수



아세아페이퍼텍(주)(대표이사 박원희)는 대구소재 골심지 전문 생산업체인 경산제지(주)(대표이사 김명철)를 지분 75%인 30만주를 220억원에 인수하였다. 이로써 아세아 제지그룹은 라이너생산에 이어 골심지 생산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되어 골판지포장 관련 그룹사인 제일산업, 유진판지, 에이팩에서 사용하는 골판지원지를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 아세아페이퍼텍의 경산제지 인수의 의미

아세아제지 그룹은 골판지포장을 생산하는 수도권 소재의 제일산업, 유진판지, 경남 소재의 에이팩, 호남지역 소재의 제일산업 광주공장을 관계사로 두고 연간 골판지 4억3천만㎡를 생산하면서 아세아제지와 아세아페이퍼텍에서 라이너를 공급하여 왔으며, 골판지원지 중 라이너는 품질과 생산 측면에서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나, 골심지 생산 라인이 없어 관계사가 사용하는 골심지의 경우 외부 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아제지그룹은 필요한 골심지는 대양그룹으로부터 조달 받고, 생산된 라이너를 대양그룹으로 판매하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번 경산제지를 전격적으로 M&A함으로써 전략 관계가 종식됨은 물론 제지업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산제지는 골심지를 전문생산하는 연간 18만톤 규모의 비교적 중소기업이지만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수요가 많은 대구소재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전문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생산기업으로 입지를 가진 S포장과 H포장을 지분교환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한 회사이다. 이를 아세아페이퍼텍이 인수하였다는 것은 골심지 생산라인을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만만치 않는 라이너 판매처도 부수적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아세아 관계사 및 S포장과 H포장 등에 공급해왔던 라이너, 골심지 생산업체들의 판매처 상실은 상당한 충격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상기의 과정을 장 · 단기적 관점에서 전문골판지포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판매처를 상실한 경쟁 제지업체들의 전문골판지포장업계에 대한 영업 강화가 필요하여 단기적으로는 골판지원지(특히 골심지 분야)의 가격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는 골심지의 품질 향상 및 골판지원지시장의 기업집중도 심화로 공급자 중심시장이 더욱 공고화되고 결국에는 가격강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상기의 의견은 골판지포장조합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사항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입쿼터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1년도 도입쿼터 분기별 배분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골판지제조업은 ‘외국인 고용한도 20%상향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고용 허용인원이 20%상향 되지만,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와 다르므로 이를 주의깊게 봐야한다.

도입쿼터 분기별 배분

구 분	2010년도 인원(%)	2011년도 인원(%)	비 고
1/4분기	13,500 (48.0%)	17,000 (46.7%)	접수마감
2/4분기		11,000 (26.7%)	2011. 4. 1 부터 접수
3/4분기	10,000 (35.6%)	7,000 (16.2%)	
4/4분기	4,600 (16.4%)	5,000 (10.4%)	
총 계	28,100 (100%)	40,000 (100%)	

2011년도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내국인피보협자수	고용허용인원 ( '10년과 동일)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골판지제조업포함)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2010년도	2011년도
10人以下	5인 이하	최대 6인 이하	2명 이하	3명 이하
11인~50인	10인 이하	최대 12인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1인~100인	15인 이하	최대 18인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101인~150인	20인 이하	최대 24인 이하		
151인~200인	25인 이하	최대 25인 이하	6 명이하	8명 이하
201인~300인	30인 이하	최대 36인 이하		
301인~500인	40인 이하	최대 48인 이하		
500인 이상	50인 이하	최대 60인 이하		

주 1. 지방 및 수도권(양주, 포천, 오산, 안성, 이천, 여주 등)소재 기업 또는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은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  
 2. 2011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내국인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제한(최초 1년, 2회 이상 3년 제한)
  - 내국인 구인신청일 2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업체 (단,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만 해당)
- 체류 만기자 대체신청 체류만료 120일 전부터 가능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업무대행계약서 및 출국예정신고서, 항공권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일본 이타가미 골판지 신문에 한국의 제미스코 WACS기계 보도



일본 골판지제조업체인 (주)MISUZU 紙業(사장 미키 타카오)는 2010년 말 동경사업부(사가미 하라시)에 골게이터의 신형 브릿지 가이드 ‘WACS’의 일본 내 제 2호기를 도입 했다. 현재 일본 도쿄 사업장에 가동 중인 WACS는 (주) 제미스코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채용하여, 레이저 센서로 위치감지와 2축 방식의 가이드 롤(헤드 우레탄롤)에 의해 Sheet를 제어하며, 고속운전 시에도 정확히 편단 시트의 위치와 장력을 조절하며, 또한 밀롤 스탠드에 롤 센터링 장치도 도입하였다. 프리히터전의 브릿지 위에 설치하여 편단 시트의 위치 및 장력을 자동조절하며, 편단과 바닥지의 접합시의 엣지 불량과 장력불량을 일으키는 트러블을 방지한다.

(주)MISUZU 紙業/동경사업부에서는 ‘WACS’를 작년 11월초 설치, 12월에는 라이너 밀롤 스탠드에 롤 센터링장치를 도입 했다. 롤 센터링 장치는 롤 스탠드의 좌, 우 Arm에 각각 모두 4개의 레이저 센서를 설치, 센서에 의해 원지 폭을 감지하여, 버튼 하나로 자동조절 할 수 있다.

(주)MISUZU는 이번에 기존의 지폭 가이드(석션 블로어 방식)가 오래되어 교체를 결정하였지만, 지금까지와는 전





혀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키 타카오 사장은 도입 효과에 대해 ‘원지교체, lot체인지를 거의 의식하지 않아 만족하며, 작업자의 작업 부담이 대폭 줄었으며, 기존에는 편단과 라이너의 끝단의 엇지불량(틀어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WF 앞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졌다’ 고 한다.

또한 (주)MISUZU의 동경사업부는 공업제품용도를 중심으로 한 소롯트 생산 1일 평균 릿트 체인지가 100회를 상회한다고 한다. 도입 이전에는 지폭 교체, 릿트 교체 때마다 작업자가 10m정도 매번 이동하여, 조절해왔던 이러한 작업이 작년과 같은 무더위에서는 상상을 뛰어 넘은 부담이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생산 효율과 품질 또한 대폭 향상되었다.

(주)MISUZU의 동경사업부에 따르면 종래에는 원지의 끊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폭교체, 릿트 체인지를 저속으로 돌리는 것으로 대응해왔지만, 도입 후는 원지 끊김 발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저속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 졌다고 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주)MISUZU 紙業에서는 본사(오사카 사업부)에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WACS는 제미스코社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국 국내에서는 현재 20대 이상 도입되어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일본 골판지제조업체의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골판지포장업체에서 일본 골판지포장기계가 아닌 외국 골판지포장기계의 도입은 처음이지만 (주)MISUZU에서는 유지 및 관리에 관해서도 레이어를 이용한 방식이므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인력 및 비용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고 전한다.

WACS제조업체인 (주)제미스코 이윤백 대표이사는 올해 안에 일본 골판지포장제조업체에서 5대 이상 구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 기사 내용은 일본 이타카미 골판지 산업신문을 편집한 것입니다.